서른두번째 이야기

“5+24”

- 중동/인도 테이블, 카타르 다녀오다 -

카타르 아웃리치 후기를 작성하기에 앞서 저희가 출발 전에 올려드린 기도제목을 보게 되었는데 기도에 모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글 솜씨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남겨보겠습니다

- 가는 팀과 보내는 팀이 연합하여 중동 테이블을 통한 하나님 사역의 풍성함이 이루어지도록 -

우리의 여정은 비행기 표 구입에서부터 주님의 친밀하신 은혜를 맛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이라 비행기 표가 매우 비쌌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리자매를 통해 저렴한 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강문종 장로님과 유미경 집사님, 윤나리, 홍성희 자매 그리고 영어울렁증으로 고민 끝에 결정한 저를 포함하여 5명이 가는 팀으로 결성되었고, 보금 자매의 섬김으로 기도카드가 만들어지고, 선교사님 선물을 위한 후원금이 마련되는 등 중동 테이블 24명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며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이제 정말 가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고, 아침 8시 비행기로 출발, 필리핀 마닐라를 거쳐 약 15시간 만에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 도착하였습니다. 책이 가득 담긴 가방이 공항검색에서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으나 당당하게 검색원을 지나치면서 감사함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사진으로만 뵈었던 샘 선교사님과 이성규 집사님께서 공항에 마중 나와 주셔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선교사님 댁으로 갔습니다. 이성규 집사님은 현지에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로마서』에 이어『그•생』을 인도 중이십니다. 이성규 집사님은 중•고등학교 때 화교권 학교를 다니셨고, 사모님은 중국어를 전공하였다면서 카타르에서 중국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세밀한 인도하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테이블 카톡방을 통해 현지 세미나 소식을 매일 나누고, 많은 관심과 응원 뜨거운 기도가 어우러지면서 카타르 현장에는 5명이 있었지만, 마치 팀원 모두가 현지에 있는 것 같은 5+24, 가는 팀과 보내는 팀의 연합된 아웃리치였습니다.

- 카타르 아웃리치 모든 일정 가운데 5명이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고 하나 되어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

선교사님 부부는 저희를 위해 미리 간식과 식사를 준비해주셨고, 첫날의 그 감동은 두 분의 헌신적인 섬김으로 마지막까지 식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감사함을 표현하고자 유미경 집사님의 진두지휘 아래 냄비로 짓는 흰밥과 숭늉, 불고기와 감자야채볶음, 호박전, 샐러드까지 요리하여 대접해 드릴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맛은 어땠냐구요? 정말 꿀맛 그 이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 가량 아침 식사를 함께 하면서 카타르 현지 이야기와 선교사님 사역 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특히 영어로 큐티하던 성희자매의 적극적인 대화 참여로 인해 식사 시간 내내 정말 웃음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카타르가 주변국가와 외교 단절로 인하여 우유 수입이 어려워졌을 때 카타르의 어떤 부자가 소 4천 마리를 비행기 6대에 실어 수입하여 우유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다는 에피소드가 기억이 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카타르가 국민소득이 매우 높은 나라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육신은 부유할지 몰라도 무슬림으로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 영혼이 공허한 안타까운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그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 세미나에 참석하는 현지 학생들이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친밀히 만날 수 있도록 -

『하나님의 성품』 세미나는 매일 오후 7시에 교회에서 진행되었고, 학생 3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세미나 현장을 처음 방문했던 순간 저희를 바라보던 학생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카타르의 인구분포는 자국민이 15% 밖에 되지 않고 귀화자체가 허용되지 않아 카타르에 거주하며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데, 저희가 만난 학생들은 주로 인도 분이셨고 직업도 선생님, 엔지니어, 의사 등 정말 다양하였습니다. 한결 같이 온화하고 사랑과 평온이 가득한 표정이었는데, 저희가 샘 & 쉬나 선교사님으로부터 받았던 인상과 매우 흡사하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생기는 인상과 표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미나 인도의 베테랑이신 강문종 장로님께서는 집중력 있는 진행과 편안한 목소리로 강의를 인도하셨고, BEE 특성상 빠질 수 없는 토론시간에도 7개 조가 모두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표 나눔은 활발한 분위기 속에서 풍성한 내용이 더해져 참가자들에게 많은 도전이 되었고, 현지 학생들의 성숙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리 자매 통역덕분에 정말 은혜로운 세미나 시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귀한 섬김 감사합니다.)

많은 주제가 다루어졌던 토론 발표시간은, 각자 자라온 문화, 전통, 가족 등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영향을 받게 되는데 성경말씀과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하였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크리스챤의 정체성을 갖고 일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주셨다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나리 자매가 한 번의 세미나를 맡아서 진행하였는데, 학생들은 물론 우리 팀에게도 잊지 못할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며 최선을 다하는 나리 자매의 모습과 적극적으로 세미나에 동참했던 학생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힌두교인 어머니를 딸이 전도하여, 어머니가 침례를 받는 순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침례식은 선교사님 집안에 있는 수영장에서 하게 되었는데, 세미나에서 만났던 학생들이 많이 참석하여 축복해주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침례를 위해 일부러 수영장이 있는 집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침례식 다음날이 주일이었는데 곱게 흰색 인도의상을 입고 교회에 나오신 할머니를 보니 너무 반가워 인사를 드렸고, 할머니께서도 저희를 많이 귀여워해주셨답니다. ^^

뜨거운 찬양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며 드린 성찬식... 그렇게 주일 예배를 마치니 곳곳에서 일대일 사역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유•초등부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모여서 암송을 시작하며 각자의 공과공부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조용한 방에서는 각자 주어진 성경본문을 시간 내에 읽고 묵상하며 나누기도 하였는데 저희 팀도 참여해보니 이분들에게 큐티가 얼마나 일상적인 삶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카타르의 여러 인도자들 및 학생들과 좋은 관계가 맺어지도록, 만남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도록 -

샘 선교사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인도자로 사역하시는 분들을 많이 소개해주셨고, 저희들은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친밀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인도자들은 대부분 이번 『하•성』 세미나 학생들이었는데, 그분들로부터 세미나를 통한 유익과 감사함을 들으며 앞으로도 이곳에 새로운 세미나가 많이 개설되기 바라는 소망이 생겼고, 그들의 열정을 보며 저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샘 선교사님께서 그 동안의 사역들을 PPT를 통해 설명해주셨는데, 토요기도모임 때마다 접했던 소식들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고, 사진을 통해 반가운 얼굴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에필로그 -

사역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조문상 선교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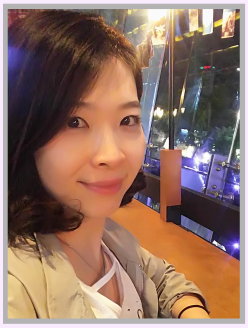
“국내 사역자는 많은데 해외 사역자가 부족해요.”

카타르 현지에서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을

뵙고 나니 더욱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팀원들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다음 스텝을 위해 도전하며 기도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그 동안 막연하게 기도해왔던 중동지역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인 기도제목과 애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됨이 개인적으로 큰 수확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일정을 계획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BEE KOREA 감사합니다.^^)

- 중동/인도 테이블 식구를 소개합니다 -

* 김기행 권사님: '루체' 와『그리스도인의 자녀양육』인도를 맡고 계십니다.
* 김찬주 권사님: 인천대 패션산업학과 교수로 성균관대 국제유학생교회에서『갈, 롬』세미나를 인도하였고, 현재『그리스도인의 자녀양육』FA 및 양재 기도모임 중동/아프리카 테이블 리더로 섬기고 계십니다.
* 이충원 집사님: 물을 처리하여 깨끗하게 하는 플랜트 시스템 중 기계부문을 설계하는 일을 하시며, 도곡 성전에서『그리스도인의 생활』인도, 교회에서는 주차사역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 유미경 집사님: 중동/인도 테이블의 부조장으로 OBC TL과『그리스도인의 생활』인도자로 섬기고 계십니다.
* 이미정 집사님: 장애우 직무지도를 하시며 OBA『갈』FA,『그리스도인의 자녀양육』FA, OBC TL로 섬기시며 양재 주기쁨 성가대 섬기고 계십니다
* 양영회 집사님: 2016년 FTS 수료하셨고, 현재 휴스턴에서 SNS를 통해 중동테이블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 이외에도 강문종 장로님, 정원만 전도사님, 김선홍 집사님, 곽명손, 김민선, 김성주, 문혜진, 문혜련, 박정선, 박혜숙, 박성태, 김수아, 양은수, 유진희, 유재화, 윤나리, 이보금, 이선영, 이정영, 이현정, 이현진, 최선, 홍성희 형제자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글: 유재화, 편집: 이경주)



글쓴이 유재화자매를 소개합니다.

2008년 온누리교회 등록 후 성경에 대해 알고 싶었을 때 2009년 BEE를 통해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고 중동/인도 기도테이블 분들의 응원으로 뒤늦게 FTS를 하게되어 얼마전 갈라디아서 FA를 마쳤습니다.
현재 양재 여호수아 공동체에서 새신자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78년생, BEE의 꽃다운 청년으로 현재 중앙지방검찰청 총무과에서 근무중)

BEE 소식

- 11월 24일 필리핀에서 현지인 12분이 라구인도자 강습회를 듣기 위해 8일 동안 방문합니다. 강습회를 수강하고 필리핀에서 라구 교재를 사용하여 차세대 그리스도인 리더를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